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교우: 이현호(에덴목장), 안희순(헐시바목장)
2. 2018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신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목장주일 & 전도주일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점심식사 후, 모든 목장은 빠짐없이 목장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임직자 & 향촌직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동두천 '언덕 위의 신혼교회' 담임인 김명득 목사님입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신태식 장로님이며, 오후찬양예배는 '임직자 & 향촌직 교육'을 위한 모임관계로 없습니다.
6. 2월 월삭새벽기도회는 2월 1일(목)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7. 교우동정 : 최은주 집사님이 평내동 평내도서관 맞은편에 '착한 과일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유숙정 권사님이 2월 3일(토) 탄자니아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정진숙 권사	설연휴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헐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목장 (유숙정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	주사랑목장	에덴목장	갈렘목장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환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8번(시편 8편) 다같이
*경배찬송	8장(통 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4장 (통 404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렘 1:4-10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채우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장 1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주일&전도주일로 인해 오후예배는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16-21 '두려워 말라'(2)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9)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66:1-20 '주의 인자하심'(1)-(5)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북한강을 곁에 끼고서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금남리로 내달렸다. 갓 북아 내린 커피가 생각나서다. 여기까지 쓰면서 밝혀둘 게 있다. 첫 문장은 사실이고, 그 다음 문장은 거짓이다. 사실 난 아메리카노 같은 내린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순전히 아내의 강요(?)에 의해 어찌다가 마시는 커피는 그렇게 쓰고 텅텅할 수가 없다. 조금 음미해보지만 이내 손사래를 친다. 그래서 내겐 내린 커피보다 가공된 인스턴트 믹스커피가 훨씬 더 좋다. 혼자 마셔도 좋지만, 여럿이 둘러서서 종이컵에다 마시는 커피믹스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카페에서는 믹스커피를 팔지 않으니 그곳에 들릴 때마다 곤혹스럽다. 어쩔 수 없이 유자차나 대추차 같은 차 종류나, 그도 아니면 레모네이드나 자몽주스 같은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다.

이 날도 청소년부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캠프장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를 찾았다. 커피 값이 다른 곳보다 싸서 그런지 카페 안은 꽤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라떼 두 잔을 주문했다. 주문하고서 기다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온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다. 알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과 대화들이 오간다. 어떤 커피를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주머니 받거나 얘기를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있는지 연신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 웃음을 터뜨린다. 어느 때부턴가 이런 분위기가 참 좋다. 사람 사는 맛이 나서다. 사람과의 어울림은 이래야 된다고 말한다면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짓궂은 것일까.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손에 받아든 고무마라떼의 향긋한 향기가 진동한다. 한입 삼키니 아쉽지만 커피 맛은 전혀 나질 않는 달콤한 맛 그 자체다. 마시면 마실수록 입꼬리가 당겨졌다. 우두커니 창밖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동행한 아내가 말을 걸어왔다. 평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새로운 것도 없지만, 분위기 탓인지 몰라도 둘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였나 보다. 그렇게 한참 생각의 물길을 걸어 올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고 했다. 커피 한 잔을 마주하며 새삼스레 생각했다. 갈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시대이지만, 변화의 속도와 사람의 정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살며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싶다.

Written by 허영진